

# 1-13. 韓國產 왕벼룩잎벌레 (딱정벌레目 : 잎벌레科 : 벼룩잎벌레亞科) 未成熟 段階의 分類 및 生態學的 研究

박진영 · 이종은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왕벼룩잎벌레屬(*Ophrida*)은 세계적으로 12종이 알려져 있으나, 주로 동양구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Ophrida spectabilis*(왕벼룩잎벌레)의 단 한 종이 서식하고 있다. 幼蟲은 *Blepharida*, *Podontia*, *Euplectroscelis* *Diamphidia*, 屬은 물론 *Galerucinae*, *Cassidinae*등 近緣亞科와도 형태적 유사성이 커 이들의 유연관계에 관한 분류학적 연구가 필요한 분류군이다.

왕벼룩잎벌레의 幼蟲은 1령 때에 mesothorax에 1쌍의 egg burster를 가진다. 몸은 짧고 굵은 원통형이며, 강모는 빈약하며, labrum의 가장자리의 가운데가 함입되어 있다. 전흉배판은 D-DL-EPa형이며, 큰턱에는 penicillus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발육기간은 평균 28일이며, 2회의 탈피를 거쳐 終齡이 된 후 땅속에서 흙으로 case를 짓고 그 안에서 용화된다. 蛹에서 평균 15일 후 성충으로 우화한다.

연 1회 발생하며, 成蟲은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관찰 할 수 있으며, 9월 중순부터 산란한다. 卵은 기주식물의 가지 사이에 흙을 내어 그 사이에 산란하여 卵塊를 만든 후, 자신의 분비물로 덮는다. 卵으로 월동하여, 이듬해 4월 중순에 부화한 후, 기주식물인 옷나무, 개옷나무, 붉나무잎을 가해하기 시작한다. 옷나무와 개옷나무를 섭식한 개체들은 오렌지색을 띠고, 붉나무를 섭식한 개체는 붉은 오렌지색을 띤다. 우화 후 成蟲은 일시적 군집생활을 한 후 흩어져 독자적으로 생활한다. 成蟲은 천적이 접근하면, 다른 가지로 점프하거나 땅으로 떨어져 죽은 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